

자폐장애 아동을 위한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임숙빈¹⁾ · 주세진²⁾ · 홍강의³⁾

울지외과대학교 간호대학,¹⁾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발달장애아 주간치료센터,²⁾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³⁾

Effects of the Attachment Promotion Therapy Program for the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

Sook Bin Im, R.N., Ph.D.¹⁾, Se Jin Ju, R.N., Ph.D.²⁾ and Kang-E M. Hong, M.D.³⁾

¹⁾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²⁾Division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³⁾Department of Psychiatry, Bund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ngnam, Korea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Promotion Therapy (APT) program for the autistic children were reviewed by 8 papers. The program was consisted with play activity centered mother-child interaction, educational activity for parents, lecture, video-feedback, and support. APT program was effective to improve the attachment behaviors and attachment security. And the mother's behaviors to her child became more child-centered, positively responsive, expressive supportively. Ninety six point seven percent of the mothers were satisfied with the APT program. They described that it was helpful to understand their children's developmental limitation and strength, to learn how to play with their children, to make supportive social network among the mothers, to minimize familial conflicts, and to make them much more comfortable with their children. They thought the APT program was to be a steppingstone of the further educational program. APT program is an effective early intervention to promote social development and decrease autistic problems.

KEY WORDS : Autism · Attachment · Attachment Promotion Therapy.

서 론

전반적 발달장애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치료 및 교육이 시작된지 4반세기가 지났다. 그 동안 주로 발달적, 행동적 입장에서, 특수교육 및 언어치료를 해왔는데 장애의 복합적 심각성으로 인해 자폐 아동들이 적응적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생후 초기부터 나타나는 사회성 발달의 결함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심각하여 적응에 큰 방해 요인이며 나이가 들고 상태가 호전되어도 여전히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도 근본

적이라고 하겠다.¹⁻³⁾ 이는 자폐 아동들이 신경생물학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것이 중추신경계의 역기능을 초래하여 생후 초기부터 대인간 감정의 인식과 조정, 정감적 표현 등 사회정서적 발달에 장애를 갖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4,5)}

이런 점에서 홍강의는³⁾ 자폐장애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애착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착은 신경생물학적 유전적으로 기획된 행동체계로 유아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인데,⁶⁾ 유아는 그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출생 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교류를 통해 융통성있게 변화 발달한다.⁷⁾ 애착은 돌 전후에 절정에 달하고 이후 애착 대상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까지에 이른다.^{8,9)} 특징은 호혜적으로 강화 발달하며 타인을 감각적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발달한다는 점이다.¹⁰⁾

애착의 장애가 어떤 기전에 따라 나타나느냐는 명확치 않더라도 자폐적인 아동의 대부분이 애착 행동의 결함을 보이고 초기 애착관계가 사회성 발달의 기초라는 점에서 자폐

접수완료 : 2006년 8월 29일 / 심사완료 : 2006년 9월 3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 Se Jin Ju, R.N., Ph.D., Division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8 Yeongeong-dong, J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 +82.2-2072-3680, Fax : +82.2-747-2471
E-mail : love-pdd@hanmail.net

장애의 사회적 발달을 위한 애착증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³⁾ 그런데 애착 즉 사회성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와의 애착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폐 아동도 돌보아주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 사회적 행동을 더 보인다는 점에서 어른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경우 사회적 행동이 증진되었다는 점에서 모애착 증진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1,11,12)} 또한 애착 형성에 결정적인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생각지는 않게 됨에 따라,¹³⁾ 나이가 든 자폐 아동이더라도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모-아 상호작용을 재경험 시킨다면 애착이 증진되리라는 가정 하에 홍강의와 임숙빈¹⁴⁾은 자폐아동을 위한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틀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과 어머니를 각각의 행동통제체계로 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¹⁵⁾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은 생후 초기 모아 상호작용과 유사하도록 다양한 감각운동놀이를 제공하고, 아동과 어머니가 상호 작용하도록 하며, 어머니에게 필요한 정보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위에 대한 비디오 피드백, 그리고 집단적/개별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5일, 1일 2시간 30분씩 애착증진놀이 활동, 강의와 비디오 피드백을 이용한 교육 활동, 면담 및 가족모임을 통한 지지적 활동으로 구성되었다.¹⁶⁾ 이후 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의 요구와 보험수가 등의 변화로 인해 모아참여 주 2회 6개월 프로그램, 모아분리 주 2회 6개월, 4개월, 2개월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해졌다.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1993년 개발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 효과가 매우 유용하였다.¹⁶⁻²²⁾ 하지만 자폐적인 아동을 위한 주요 치료 모델로서 자리매김 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논문 8편을 고찰함으로써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애착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의 자폐적 행동 특성에 미치는 효과, 부모의 태도 및 양육행위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부모의 만족도²³⁾를 살펴보겠다.

1.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애착 발달에 미치는 효과

1)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애착행동 발달에 미치는 효과

임숙빈 등¹⁷⁾은 자폐아동 6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 5회 3개월간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애착행동 및 특성에 나타나는 변화를 측정하였다. 자료는 간호사의

참여 관찰, 어머니와의 면담, 간호기록의 분석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 결과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어머니를 찾는 아동의 행동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즐겁게 놀 때 주로 보였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유대감도 늘어났다. 어머니와 함께 노는 실제 접촉의 양이 많아지고 즐거운 경험이 증가할수록 아동은 어머니에게 근접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 어머니 역시 아동과 즐겁게 노는 경우 애정적 행동을 더 표현하였다.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을 모방할 때에 어머니의 행동을 살피는 아동의 행동이 늘어난 반면 어머니가 과제 수행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행동이나 애정적 행동이 감소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어머니들은 아동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맞추어 줄 수 있어 답답함이 줄고 아동을 가깝게 느낀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폐적 특성이 심한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행동이 강화되지 않아 지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은 실제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즐거운 상호 교류 경험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애착행동을 증가시켰다.

이런 결과는 주 5회 1년 프로그램 중재 후 어머니들의 일기를 분석한 임숙빈 등¹⁹⁾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어머니의 일기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이 시작된 2~3개월 후부터 아동의 애착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를 더 많이 바라보고, 좋아하고, 관심을 끌려고 하며, 신체접촉이 증가하고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려 우는 행동이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이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아동들의 접근 행동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정감적 표현도 심화되었으며 보다 호혜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읽는 일차적인 행동 수준은 부족함을 보였는데 개별차가 컸다. 그런데 아동이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행동이 늘자 어머니가 아동을 떼어두려는 행동을 보여 애착과 의존의 차이, 애착행동의 발달 단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즉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애착행동이 단계적으로 발달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맞추어 아동을 대하도록 어머니를 지지하고 교육해야 함을 보였다.

임숙빈은¹⁶⁾ 2~4세 자폐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 5회 6개월간의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 중재 후 참여군과 비참여군간 애착행동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자료는 모-아 자유놀이 상황에서 비디오 촬영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연구자가 개발하고 전문가 타당도를 거친 모-아 애착행동 기록지로 수량화하였다. 그 결과 참여군의 애착행동, 지향적 행동, 접촉유지 행동, 차별적 행동, 반응적 행동, 애정적 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참여군이 더 즐겁게 놀고 지속시간이 길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참여군의 애착행동의 변화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참여군에서도 많이 변화한 아동이 있는 반면 미미한 변화만 보인 경우가 있어 개별차를

드러났다. 또한 공감적 행동, 일치적 행동, 합동주시 행동도 증가했지만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애착행동, 접촉유지 행동, 차별적 행동, 애정적 행동도 유의하게 변화하여 비참여군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비참여군 어머니들의 애착행동은 변하지 않았다.

2)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애착유형 및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주세진 등(1995)¹⁸⁾은 자폐아동 5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주 5회 1년간의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 후 애착 유형의 변화를 평가하였는데 자료는 Ainsworth의 낯선 상황절차를 수정한 상황에서 비디오 촬영으로 수집되었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에 약간 양가적인 애착 유형을 보이던 아동이 매우 안정적인 애착 유형으로 변했고, 약간 회피 행동을 보이던 아동도 매우 안정적인 애착 유형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불안정한 애착, 중간 정도의 회피행동을 보이던 아동도 약간 회피 행동을 보이는 안정적 애착유형으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매우 양가적이어서 불안정 애착 유형에 속하던 2명의 아동이 약간 양가적인 안정적 애착 유형으로 변하여 애착 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안정적 애착 유형의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2개월 단기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 역시 애착안정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을 보였는데, 주세진 등²¹⁾은 30~42개월의 자폐아동과 어머니 24쌍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애착안정성을 비교하였다. Waters & Deane²⁴⁾이 개발하고 송지운²⁵⁾이 번안한 애착 Q-Set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보이는 애착관련행동을 평가하였는데 참여군의 애착안정성 및 정서적 공유, 순응, 까다로움 등을 나타내는 행동에서 프로그램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비참여군에서는 같은 기간 애착안정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애착증진치료 단기 프로그램이 애착안정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다.

2.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 발달에 미치는 효과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기타 사회적 행동 발달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임숙빈¹⁶⁾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DARBAS(Developmental Age-Referenced Breakdown Assessment Schedule)의 사회성 척도를 이용하여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참여군 7명 중 3명이 '사회 규칙 알기'와 '타인에 대한 인식'에서 두드러진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타인에 대한 인식' 행동은 애착행동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규칙은 사회적 행동의 금지나 제한점을 준수하고 제약을 이해하며 어른의 지시를 받아들

이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또한 관심을 끄는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또래 놀이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보이는 아동이 있었는데 이들은 애착행동에서도 현저한 증진을 보인 아동들이었다.

한편 애착증진치료를 통해 가장 변화가 어려웠던 행동은 일치적 행동 및 합동주시 행동이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일치점에 도달함으로써 애착 대상과 파트너십을 이룰 때 나타나는 행동으로 사회인지 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세진²²⁾은 애착증진치료를 수정 보완함에 있어 애착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6개월간의 프로그램을 마친 18명의 자폐아동들에게 사회인지 능력 향상을 초점으로 하는 중재를 연계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주 2회, 1회 40분씩 총 20회기 중재로 아동의 요구 표현, 눈맞춤, 의도 탐지, 시선 탐지, 사회적 참조, 합동주시 행동에 반응하거나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였다. Mundy 등²⁶⁾이 개발한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ESCS)로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였고, 김승국과 김옥기²⁷⁾의 사회성숙도(Social Maturity Scale) 척도로 자조, 이동, 작업,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화 등 사회적응행동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회인지 능력 향상 중재의 참여군은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에서 비참여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영역인 상호작용과 합동주시 행동과 모방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요구행동과 표상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요구행동도 참여군내에서만 중재 전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참여군의 사회적응행동은 비참여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1993년부터 2005년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연락이 가능한 부모 98명 중 61명의 응답을 분석한 만족도 조사²³⁾에서도 보고되었듯이 82% 부모들이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62.3% 부모가 현재 아동의 사회성에 애착증진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3.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폐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임숙빈¹⁶⁾은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아동기 자폐증 척도 CARS(Childhood Autism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후 자폐적 행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참여군 아동은 프로그램 전에 모두 심한 수준의 자폐적 행동 특성을 보였으나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심한 수준이 5명, 경한 수준이 1명, 자폐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1명으로 변화하였다. 즉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아니었으나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폐적 특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냈다.

그런데 주세진²²⁾ 연구에서 사회인지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재 후 참여군 아동보다 자폐정도의 변화가 비참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Lord 등²⁸⁾이 개발한 자폐 진단 관찰 도구 ADOS(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ale)로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나 도구의 상징적 이용을 측정한다. 애착증진치료에 이은 사회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후 위의 행동에서 자폐적 특성이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애착행동 중 일치적 행동이나 합동주시 행동처럼 발달단계가 높은 행동은 사회인지 향상 훈련을 연계하였을 때 더욱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 만족도 조사²³⁾에서도 41%의 부모가 자폐적 특성이 감소됨으로써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72.1%의 부모가 자폐적 특성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혼자 노는 시간이 줄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50.8%),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었으며(49.2%), 일상적인 문제 행동이 감소되었고(34.4%), 감각적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이 감소하였다(32.8%)고 응답했다.

4.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부모의 태도 및 양육행위에 미치는 효과

주 5회 1년간의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 후 자가 평가 및 동료 평가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평가한 결과 아동과 보조를 맞추는 능력, 아동을 대하는 온화함, 아동의 신호에 대한 내용과 정서적인 상태 파악 및 맞추어 주는 행동,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인지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²¹⁾ 임숙빈¹⁶⁾도 주 5회 6개월간의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군 어머니의 양육행위 변화를 비참여군과 비교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민감성, 반응성, 사회정서적 성장촉진 행동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후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어머니의 양육행위의 변화는 같은 기간 비참여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내용분석 결과 어머니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언어적 자극이 많아졌고 반응적 행동도 늘어나 모-아 상호작용이 길어졌다. 또한 아동들에게 정감적 활동을 유도하고 아동의 요구에 맞추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으며 아동이 싫어하면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질적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김주희²⁰⁾는 주 1회 2개월간의 애착증진치료 단기 집단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담감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경희²⁹⁾의 장애아동 부모 태도 척도와 서미혜와 오가실³⁰⁾의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참여군과 비참여군 어머니의 부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태도는 차이가 있었다. 참여군 어머니의 태도가 비참여군 어머니에 비해 덜 부정적이었지만 두 군 모두 부정적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와 어머니를 위한 중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부모의 만족도 조사²³⁾에서도 이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이 된 점은 아이의 문제점을 잘 알 수 있어서(82%), 아이와 함께 노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78.7%), 치료자가 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서(75.4%) 아이에 대한 친밀감이 증가하여서(73.8%),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 어머니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갖게 되어서(62.3%), 치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어서(39.3%)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른 자녀를 돌보지 못해서(18%),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16.4%), 어머니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아서(11.5%), 다른 아이와 비교가 되는게 힘들어서(9.8%) 등 어려운 점도 밝혔으나 아동에 대한 이해가 늘고 실천적 행위를 배운다는 점에서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응답하였다.

아버지 모임에 대한 반응은 60.7%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36.1%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으며, 32.8%가 아이와 노는 방법을 배웠고, 50.8%가 아버지 모임을 정기적으로 더 자주하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5.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주세진 등²³⁾은 애착증진치료에 참여한 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평균적으로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만족하는 이유는 아이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서(83.6%), 아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77%), 다른 부모를 만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어서(65.6%),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21.3%)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시간이 짧아서(31.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24.6%), 그리고 아이를 비교하게 되면서(2.0%) 마음이 힘들었다고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들이 직접 기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추후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동과 상호작용하고 즐겁게 노는 방법을 알게 된 것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고찰 및 결론

애착증진치료는 어머니와 아동 간의 실제적인 접촉을 증가시킴으로써 애착 행동의 발달을 가져왔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2~3개월 후부터 애착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

작하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는 일차적인 지향적 행동에서부터 접촉유지 행동, 차별적 행동, 반응적 행동, 애정적 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아동들의 접근 행동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정감적 표현도 심화되었으며 보다 호혜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애착행동이 단계적으로 발달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민감한 시기가 지나도 애착 발달이 가능하다는 Bowlby³¹⁾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애착행동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더 즐겁고 지속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즐거울수록 상호작용이 길어지니까 더 많은 애착 행동이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애착증진치료는 즐거운 상호 교류 경험을 통해 자폐적인 아동의 애착행동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보다 안정적인 애착유형으로 변하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 치료는 애착행동의 증가만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타인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규칙 알기에서 큰 변화를 보였고, 관심 끄는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또래 놀이에서도 긍정적 변화를 보였는데 개별차가 있었다. 62.3%의 부모도 아동의 현재 사회성에 애착증진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증진치료는 아동의 자폐적 행동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는데 사회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연계한 후 자폐적 특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부모들도 프로그램 참여 후 자폐적 특성이 감소됨으로써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혼자 노는 시간이 줄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일상적 문제 행동이 감소되었으며, 감각적인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자폐적인 특성의 핵심이 사회적인 결함이고, 애착이 사회적 발달의 기초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애착증진치료가 자폐장애 치료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아동의 애착행동 증가와 동시에 어머니의 애착 행동 또한 증가하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어머니들이 아동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따라서 아동의 행동 단서나 정서에 잘 맞추어 줄 수 있어 답답함이 적어지면서 아동을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강경미 등³²⁾도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인 정서적 유대의 문제로 인해 부모는 자폐아동을 낯설게 느낄 수 있으므로 애착행동이 늘게 되면서 새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애착행동도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자극이 다양해지고 아동의 요구에 맞추는 융통성을 보이는 등 질적 향상을 보였다. 그런데 아동의 적응적 발달에는 다양한 사회적 자극의 질적 특성이 양적 특성보다도 중요하므로 양육자의 상호 교환적이며 의도적인 관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Dunham & Dunham의³³⁾ 언급을 고려할 때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애착증진치료가 애착 행동의 증진뿐만 아니라 부모가 다루기 힘든 자녀를 더 잘 이해하고 애정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기초를 이루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맞추는 경우 아동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어머니가 과제 수행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행동이나 애정적 행동도 감소하여 적절히 반응적인 양육자가 매우 반응적인 양육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Watson의³⁴⁾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가 아동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으로 터득한다고 하겠다. 부모들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이의 문제점을 잘 알게 되고, 함께 노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치료자의 방식을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동이 지속적인 근접행동을 보이자 의존적이라 생각하고 아동을 떼어놓으려는 어머니도 있어서 상세한 설명이나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즉 애착은 단계적으로 발달하므로 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아동을 대하도록 어머니를 지지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Adamson과 Russell도³⁵⁾ 말했듯이 덜 반응적이고 부정적인 양육은 사회인지 행동 발달을 저해하는 등 어머니의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단기 중재에서 참여군과 비참여군 간에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부정적인 수준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어머니를 위한 중재에서도 기간이 충분해야 함을 드러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는 반응을 함께 생각한다면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버지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버지 모임을 경험하도록 한 결과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으며, 아버지도 아이와 노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버지 모임을 더 자주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최보금 등³⁶⁾도 보고하듯이 어머니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어머니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아 어려웠다는 생각도 완화시키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자폐적 특성이 심한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노력하는 행동이 강화되지 않고 이에 따라 지친 모습을 보여 모야간 애착 행동은 서로 주고받으며 강화 발달한다는 건

해를^{37,38)}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지지적인 접근 역시 놀이 프로그램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도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동 못지않게 돌봄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데 집단적 접근 뿐만 아니라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개별적 접근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효과 역시 개별차가 컸기 때문에 개별적 접근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때 비용 효과적인 면도 함께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애착행동 중 공감적 행동, 일치적 행동, 합동주시 행동은 증가하기는 했으나 그 변화가 유의하지 않아 일치적 행동, 합동주시 행동 등이 공감 능력과 더불어 자폐아동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 결함이고 변화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39,40)} 그렇지만 사회인지 능력 향상 중재가 연계되었을 때 사회적 의사소통 행동, 상호작용과 합동주시 행동, 그리고 사회적응행동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므로 이런 노력이 계속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의 한계성과 의료보험 수가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개발한 단기 프로그램 또한 참여군 아동의 애착안정성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 반응에서도 나타나듯이 치료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31.1%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다는 경우도 24.6%가 있어 중재 기간 및 치료 유형에 대한 심사숙고와 실험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겠다. 분명한 것은 치료 기간과 프로그램의 강도(intensity)가 충분하여야 하며 효율성을 고려할 때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아야 할 것인 바 가장 적절한 기간과 횟수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의 개별차도 심하고 부모의 양육 특성 등에서도 엄격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표집 수도 충분치 않고,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서 연구하였기에 철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유의해야 하고 연구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도 추후 연구들이 따라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애착증진치료에 참여한 아동 및 어머니의 애착 행동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애착안정성을 높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애착 유형으로 향상하였다. 또한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폐적 행동 특성의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부모들이 애착증진치료가 아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동 발달에도 도움이 되며, 다른 부모를 만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고, 가족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되어서 만족한

다고 했다. 그리고 애착증진치료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다음 교육의 밑거름이 되고 아동과 상호작용하고 즐겁게 노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애착증진치료는 개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치료 목표를 성취하고 있으므로 자폐적인 아동을 위한 조기 중재로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중심 단어 : 자폐장애 · 애착 · 애착증진치료.

References

- 1) Volkmar F, Cohen D, Paul R. An evaluation of DSM-III criteria for infantile autism.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986;25:190-197.
- 2) Lotter V. Follow up studies. In M Rutter, E Schopler (Eds.). *Autism*. New York: Plenum;1978. p.475-495.
- 3) 홍강의. 자폐장애: 본질과 개념 변천에 관한 고찰.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993;4:3-26.
- 4) Mundy P, Sigman M.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social impairment in autism. In G Dawson (Ed.). *Autism: Nature,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1989. p.3-21.
- 5) Dawson G, Lewy A. Arousal, attention, and the socioemotional impairments of individuals with autism. In G Dawson (Ed.). *Autism: Nature, diagnosis, and treat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1989. p.49-74.
- 6)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Inc.;1969.
- 7)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1973.
- 8) Pipp S, Easterbrooks MA, Harmon RJ.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knowledge of self and mother in one-to-three-year-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1992;63:738-750.
- 9) Ainsworth MDS. Attachment and dependency: A comparison. In JL. Gewirtz (Ed.). *Attachment and dependency*. Washington D.C.: Winston & Sons;1972. p.97-137.
- 10) Seibert J, Hogan A, Mundy P. Assessing interactional competencies: The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982;3:244-259.
- 11) Shapiro T, Sherman M, Calamari G, Koch D. Attachment i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orde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San Antonio: TX: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1985.
- 12) Tonick I. Social relatedness in autistic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ah;1981.
- 13) Rutter M.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concepts: Retrospect and prospect. *J Child Psychol Psychiat* 1995;36: 549-571.
- 14) 홍강의, 임숙빈. 자폐장애의 애착증진 치료: 새로운 치료접근 모색. *한국자폐학회 제1회 학술대회*. 1994년 2월 12일, 서울: 한국자폐학회;1994. p.1-5.
- 15) 홍강의, 주세진, 임숙빈. 자폐장애 아동을 위한 모애착증진

-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2006 출판중.
- 16) 임숙빈.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모-아 애착증진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 서울: 서울대학교;1997.
 - 17) 임숙빈, 주세진, 오민자, 권미경, 곽은영. 자폐적 행동양상을 보이는 아동과 어머니간의 애착발달에 관한 분석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994;3:29-43.
 - 18) 주세진, 홍강의, 임숙빈, 권미경, 곽은영.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중간보고). 한국자폐학회 제2회 학술대회. 1995년 2월 11일, 서울: 한국자폐학회;1995. p.119-134.
 - 19) 임숙빈, 주세진, 권미경, 곽은영, 홍강의. 어머니 일기분석을 통해 본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변화: 애착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자폐학회 제3회 학술대회. 1996년 2월 11일, 서울: 한국자폐학회;1996. p.103-124.
 - 20) 김주희. 단기 집단 모아놀이 프로그램이 전반적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태도 및 부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서울: 서울대학교;2001.
 - 21) 주세진, 김주희, 권지향, 임숙빈, 홍강의. 단기 모아놀이 중재가 자폐아동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 2001; 40:51-64.
 - 22) 주세진. 자폐아동을 위한 사회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 [박사학위]. 서울: 서울대학교;2005.
 - 23) 주세진, 임숙빈, 홍강의. 애착증진 프로그램의 부모 만족도 (unpublished).
 - 24) Waters E, Deane KE.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p.41-6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985;50:1-2. Serial No. 209.
 - 25) 송지윤. 애착장애 아동의 애착 Q-set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1996.
 - 26) Mundy P, Hogan A, Doehring P. A Preliminary Manual for the Abridged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s.
 - 27) 김승국, 김옥기. 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1985.
 - 28) Lord C, Rutter M, DiLavor P, Risi S. Autism Diagnostic Observation Schedule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2003.
 - 29) 이경희. 장애아동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의 구조 모형 [박사학위]. 서울: 서울대학교;1993.
 - 30) 서미혜, 오가실. 만성 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993;23:467-484.
 - 31) Bowlby J.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1980.
 - 32) 강경미, 곽영숙, 이수경. 자폐장애아 어머니의 우울 정도와 그들 자녀의 자폐 증상간의 상관관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998;9:148-153.
 - 33) Dunham P, Dunham F. Optimal Social Structures and Adaptive Infant Development: Joint Attention. Lawrence Erlbaum Associations, Inc.;1995. p.159-188.
 - 34) Watson J. Contingency perception in early social development. In T Field & N Fox (Eds.). Social perception in infan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1985. p.157-176.
 - 35) Adamson LB, Russell CL. Emotion regulation and the emergence of joint attention. In P Rochat (Eds.). Early social cognition: Understanding others in the first months of life. Mahwah, NJ: Erlbaum;1999. p.281-300.
 - 36) 최보금, 홍상욱, 배옥현. 장애 아동 어머니의 자기 지각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원문제 연구 1996;15:147-153.
 - 37) Klaus MH, Kennell JH. Parent infant bonding. 2nd ed. St. Louis: Mosby;1982.
 - 38) Brazelton TB. Infants and mothers differences in development. New York: Lawrence Book;1983.
 - 39) Osterling J, Dawson G. Early recognition of children with autism: A study of first birthday home videotapes.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s 1994;24:247-257.
 - 40) Baron-Cohen S. Mindblindness: An essay on autism and theory of mind. NY: Oxford University Press;1995.